

12/6(월) 욕기 묵상 25

욕기 16:1-2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욕의 반박이 담긴 말씀입니다. 욕기 16장의 구조는 먼저 엘리바스를 향한 탄식(1-6절)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7-22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보이는 특징은 이제 욕이 친구들의 말에 대한 반박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탄식의 내용이 좀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를 향한 탄식(1-6절)

지난 시간에 묵상한 대로 엘리바스는 욕이 깨달은 것은 그의 친구들이 깨닫고 경험한 것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잠잠히 자신에게서 들으라는 조언을 했습니다(욕 15:17-18,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욕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출생의 비유를 통해 욕의 죄가 낳은 결과라고 단정지었습니다(욕 15:35,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욕 4-5장에 기록된 엘리바스의 첫번째 발언과 비교해 볼 때 그의 말은 첫번째 발언에 비해 내용은 짧아졌지만 그 내용은 더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욕 5장에서 엘리바스는 욕이 당한 고난에 대한 반전의 소망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더이상 그런 희망적인 말이 두번째 변론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욕 5:17-18, “불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욕은 엘리바스에 대한 두 번째 탄식을 시작하면서 친구들을 모두 싸잡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것은 그들의 말이 욕에게 어떠한 위로도 주지 못했고 도리어 고통을 더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가지 폭력들 가운데 그 중에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연예인들이 온갖 악플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이처럼 언어 폭력도 물리적인 폭력 못지 않게 타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친구들의 말이 그들 스스로 볼 때는 옳은 일이었는지 몰라도 욕의 볼 때는 그들이 좀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왜냐하면 친구들의 조언처럼 자신이 아무리 잠잠하여도 그의 아픔은 결코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런 욕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잠잠하기 보다는 그가 어떤 말이라도 지금처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들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욕의 친구들은 욕의 말을 정죄하기에 바빴고 그로 하여금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탄식(7-22절)

욕은 이제 탄식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욕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피로하게 하시고 시들게 하시며 또 자신을 찢고 적대시 하시며 대적하시고 심지어 부서뜨리며 비참하게 하셨는지를 신랄하게 구구절절이 언급합니다(7-17절). 이 중에서 13-15절의 말씀은 매우 잔인한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13-15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 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느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 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베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욥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탄식입니다. 우리는 욥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욥이 했던 이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친구들처럼 즉시 반박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과 중보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욥기 16장에서 그의 변론을 마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욥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 대한 억울한 변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의지하는 증인과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본문 19절이 단서입니다(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히 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시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처럼 욥의 탄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나온 불신자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질문에서 나온 탄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퍼부었던 욥은 이제 감정을 다시 추스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정죄하는 친구들로부터 중재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또 욥은 그가 죽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20-23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갈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욥과 같이 자신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아파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근심하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고난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진 믿음은 더 좋은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에 대한 이해와 겸손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과 고난 당한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는 좋은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 했어도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코로나 19 를 위한 기도:** 코로나 19 번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전세계가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안과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3. **위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멕시코 이철남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